

# 이라크 Iraq

—종교: 이슬람교(99%)

—인구: 3천 7백만(기독교인 1%, 2014년 통계)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2위)

—주 박해요소: 이슬람 극단주의

이라크(Iraq)는 박해 지수 90점으로 2016년도 세계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 WWL)에서 2위를 기록했다(작년 기록은 박해 지수 86점에 세계 3위였음). 이슬람 급진주의, 정확하게는 이슬람국가(IS, 급진 이슬람 수니파(Sunni, 이슬람 최대 종파) 무장단체)의 영향으로 인해 이라크 사회는 더욱 더 이슬람화(Islamized) 되었으며 국내 기독교 박해 역시 가중되었다.

## 이라크의 박해상황

### 1. 박해원인

이라크의 기독교 박해를 형성하는 주도적 요소는 이슬람 극단주의(Islam extremism)이며, 이차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혼합된 부족간 분쟁(tribal antagonism blended with Islamic extremism)과 구조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그리고 이라크 교회의 교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 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슬람 극단주의(Islamic extremism):** 급진 이슬람 단체들은 이라크에서 “종교 청소(religious cleansing)”를 시행함으로써 완전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 한다. 2003년 미군이 주도하여 이라크를 침공한 이래 국내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반 서구적그리고 반 기독교적 정서와 더불어, 이슬람 무장단체와 반군의 폭력 수위가 심

각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봐주기식 무혐의 처리는 이러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인해 이라크 북부와 서부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의 수가 증가했다. 2014년 6월, 이슬람국가(IS)는 이라크 북부와 서부 그리고 시리아 내 점령 지역에서 이슬람 신정 일치 국가인 칼리프(Caliphate) 건설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슬람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며 국내의 기독교 박해 폭력 사태의 대부분을 주도했다.

이라크(Iraqi) 정부와 쿠르드(Kurdish) 정부 내부에서도 지역 개발 문제로 인해 이슬람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란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몇몇 시아파(Shiite, 수니파 다음으로 큰 이슬람 분파) 정당으로 인해 이라크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란 접경 지역의 기독교인들, 특히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무슬림배경의 기독교인들(MBBs)은 이미 이란 첩보 기관에 의해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이라크 사회는 전반에 걸쳐 더욱 이슬람



피난처에서의 어린 아이들(VPA제공)

화 되어가고 있다. 히잡(hijab, 머리를 가리는 이슬람 여성 의상) 착용 규정이나 라마단(Ramadan, 이슬람교의 금식 기간) 준수 등 여성에 대한 사회 통제 역시 강화되었다. 바그다드(Baghdad)와 바스라(Basra)에서는 기독교 여성이라도 집 밖에서는 신변 안전을 위해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IS 점령 지역의 여성들은 모두 니캅(niqab, 눈을 제외한 얼굴과 몸 전체를 덮는 이슬람 여성 의상)을 착용하도록 강요당한다.

**부족간 분쟁(tribal antagonism):** 이라크 사회는 여전히 부족 중심의 국가이다. 이라크에서 해묵은 규범과 가치를 계속해서 강요하고자 하는 부족 중심주의(tribalism, 특정 지역 부족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는 상당 부분 이슬람과 혼합되어 있으며 무슬림배경의 기독교인들(MBBs)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구조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기독교인을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거나 기독교인 소유의 집이나 토지를 불법 강탈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부패는 이라크 기독교 박해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지 비정부기구 바그다드 베이투나(Bagdad Beituna, “바그다드 우리 집”)에 따르면 2003년 이래 바그다드에 거주하는 이라크 기독교인의 사유 재산 침해 사례가 7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한 바그다드 정부 관계자는 바그다드 기독교인의 저택 70% 가량이 불법으로 강탈당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은 취약한 소수 집단인지라 부당하게 착취 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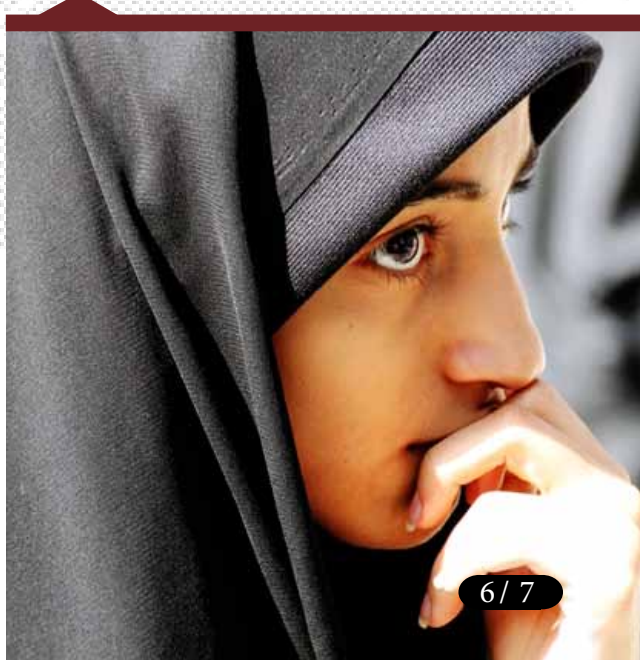
부정부패는 이라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으며 최고치에 달해 있다. 주로 정치 권력 중심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 소유의 저택과 더불어 교회와 수도원 건물까지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라크 교회의 교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 이라크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정통 교파에서 비 정통 개신 교단으로 교회를 옮긴 기독교인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부족 지도자 그리고 사회로부터 오는 위협과 반대를 무릅써야 한다. 실직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유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며,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심지어 정통 교회의 교인이라도 복음주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교에게 결혼 주례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흔히 가족과 지역 사회가 나서서 이들에게 망신을 주고는 한다.

## 2. 박해배경

사실 이라크 기독교는 유서 깊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고대 도시 니느웨(Nineveh)의 현재 명칭이 바로 모술(Mosul, 이라크 제2대 도시, 현재 IS에 의해 점령됨)이다. 바그다드와 모술 등 이라크 도시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2003년 미군의 침공 이전에,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

이란여성





3일간의 교사훈련 기간중 말씀을 나누고 있다(VPA제공)

체 중의 하나였다. 2000년간 이곳에 거주해온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라크는 지난 수년 간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최소한의 보안을 제공하지도 못하는 정부 밑에서 구조적 불확실성과 갈등 그리고 불안정을 겪어 왔다. 부정부패의 수준은 극에 달했으며 종파간 분쟁은 멈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라크는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북부의 쿠르드 반 자치구는 아르빌(Arbil, 이라크 북부 도시) 소재 쿠르드 자치 정부(Kurdish Regional Government, KRD)가 다스리고 있으며,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정부가 나머지 아랍 지역을 다스린다. 쿠르드인(Kurd)과 아랍인(Arab)은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 석유 자원의 대부분이 발견되는 키르쿠크(Kirkuk)와 모술은 마침 쿠르드 지역과 아랍 지역의 경계 지대에 해당하며,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는 한다. 한편에서 쿠르드 자치 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편에서는 테러 집단이 완전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 종교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라크에도 희망의 작은 불씨를 찾아볼 수 있다. 북부 일부 지역 위주로 점점 더 많은 무슬림배경의 신자(MBBs) 목사들이 연합하고 있다. 또한 IS로 인해 발생한 시리아 난민에게 이불과 장난감을 나눠주는 등 도움을 제공하는 정통 교회와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아르빌과 도후 주(Dohuk)의 교회들은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 15,000가구에 완벽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구호를 제공하고 있다.

### 3. 이라크의 기독교 유형들

이라크에는 세가지 유형의 기독교가 있으며, 이 유형들 모두 핍박아래에 있다.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 아시리 정교회(Assyrian Orthodox Church)나 칼데아 가톨릭교회(Chaldean Catholic), 시리아 가톨릭교회(Syrian Catholic Church)와 같은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들과 미국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무슬림배경의 신자들(MBBs)은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극심한 핍박을 당한다.

**비전통적 개신교회:** 바그다드나 바스라(Basra)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 또한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 니네베(Nineveh)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세력 IS가 점령하고 있어 현재 교회가 전혀 없다. 대부분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광적인 이슬람 운동, 정부기관,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이나 차별을 받을 위협에 놓여 있으며, 가족의 반대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역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 4.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와 폭력

**박해 유형:** 현재 이라크에 나타나는 박해는 부족간 적대심이 혼합된 이슬람 극단주의의 유형을 띤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평균 핍박지수는 지난해 평균지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폭력지수는 16.112에서 15.556으로 감소된 것으로 기록됐다. 전체 평균 박해지수가 높게 나온 이유는 월드워치리스트(WWL) 팀에서 기독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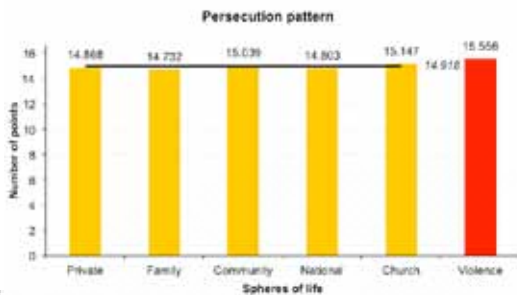
교회텐트안의 두 가정(VPA제공)





을 4가지에서 3가지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세력 IS가 모든 삶의 영역에 이미 높은 수준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진행 중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박해 유형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압력이 전국적으로 증가되었다. 특별히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MBBs)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개인영역:** IS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기독교 종파의 개인예배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IS 통제지역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해 무슬림 출신의 신자들(MBBs)은 신앙을 공개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참고 : 위의 숫자들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됨. 천 단위로 읽지 않음.>

**가족영역:** 무슬림배경 신자들(MBBs)은 종종 신앙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 이들은 가족의 협박과 그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가정으로서의 삶은 IS 통제구역에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 이라크(Iraq)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부모들이 조심스럽게 자녀들과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특히 이슬람 수업시간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경우에, 그 가족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역사회영역:** 지역사회에서 무슬림 출신 신자들(MBB)이 신앙을 공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자신들의 신앙이 알려지게 될 경우 차별을 받게 되

며, IS가 장악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종교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IS 통제구역에서는 사형집행 영광과도 같은 일이다. 모든 여성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베일로 완전히 가리도록 강요를 받는다.

**국가영역:**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는 무슬림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하는 법의 주요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이 알려질 경우, 국가적인 차원의 차별을 받게 된다. 신분증에 종교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2015년 10월, 이라크(Iraq) 의회는 비 무슬림 자녀가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전환되는 법안을 통과했다. 만약 아버지가 무슬림으로 개종하거나 어머니가 무슬림과 재혼할 경우 아이들은 자동으로 무슬림이 되는 법이다. 소수 종교인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었다. 종래와는 다르게, 개신교인들의 아기마저도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무슬림으로 등록될 수도 있게 되었다. 만약 기독교 부모가 자녀 출생증명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정정요청한다면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쿠르드족(Kurdish)이 거주하는 이라크(Iraq) 북부, 기독교인 밀집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땅을 무슬림이나 야지디족(Yazidis)에게 팔고 이주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역전 정책’이 수년간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쿠르드족(Kurdish) 사이에서 계속되어 왔는데, 이런 추세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은 점차 이슬람이 우세인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교회영역:** IS 통제지역에 있는 교회와 수도원은 대개 파괴되거나 감옥, 이슬람 센터, 말 훈련소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IS가 장악한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교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IS가 조직하지 않은 공공집회는 금지되어 있다. 이민 때문에 성직자들과 교인의 수가 부족하여 이라크(Iraq) 중부와 남부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물로 나와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폭력의 영역:** IS가 칼리프(caliphate, 이슬람 신

정 일치 국가건설 표방)를 선포한 후, 야지디족(Yazidis), 시아파 무슬림(Shia Muslims), 샤박족(Shabak), 카카이족(Kakai) 외에 다른 소수종족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집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내 실향민(IDP)이 되었고 쿠르드지역(Kurdish region)으로 대피하면서 살해와 유괴를 당했고, 성폭력을 포함한 물리적 학대를 받으며 결혼을 강요당했다. 특히 모술(Mosul)과 니네베(Nineveh) 평지에 있는 다수의 교회와 수도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재산이 피해를 입고 파괴되거나 압수를 당했다. 1년간 교회 또는 기독교인의 건물을 상대로 한 공격이 최소 18번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2014년 11월 IS전사들에 의해 납치된 야지디족(Yazidis) 및 기독교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 이들의 몸값을 시사하는 서류가 발견되었다. 최고 몸값은 한 살부터 아홉 살 사이의 아이들에 대한 것이었다. 중동 지역 인권 단체인 MEC에 따르면, 2015년 1월 IS는 IS전사들이 사로잡은 여성들을 성폭행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그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라크(Iraq)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 전체의 통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에 언급한 예들은 일 부분에 불과하다.

## 5. 미래 전망

이라크(Iraqi)와 쿠르드족(Kurdish) 군대가 주둔한 북쪽지역은 이란(Iran)과 미국(US)이 이끄는 연합군의 도움으로 전보다 나아졌지만, 이라크(Iraq) 인구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 쿠르드자치정

부(KRG)는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EIU의 보고서를 통해 미래에 가능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IS조직의 발전이 지속되고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간 세력 균형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데, 이란(Iran)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라크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란은 이미 이라크 내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라크는 IS를 억누르기 위해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이란(Iran)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IS의 증가하는 권력 위에 이란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상황, 특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자들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강도 높은 폭력과 결합된 수니파(Sunni)와 시아파(Shia) 무슬림 사이가 더 벌어지고 법과 제도를 집행해야 할 중앙정부의 불안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종파의 집단으로 도피할 것이다. 서로 다른 종교와 종족 사이에 불신이 증가하면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종교인들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알카에다(AI Qaeda)가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색깔을 극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다. IS는 알카에다(AI Qaeda)의 분파였지만 너무 온건한 성격의 알 카에다(AI Qaeda)에서 분리해 나왔고, 알카에다와 다른 과격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만약 알카에다가 변화에 성공한다면, 이라크 내 폭력과 불안정은 정도를 더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은 이라크를 떠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상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라크 내의 여러 다른 인종과 종교 단체들이 공동의 적, 극단적 이슬람 교도인 지하디스트(jihadist)를 상대로 연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라크(Iraq)에 더 많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IS의 과격성은 온건파 무슬림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온건파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비

박해로 피신한 기독교인들의 텐트와 교회





쿠르드족 사람들; 독일여행객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VPA제공)

못한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을 열게 될 것이다.

## 이라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돕는 핵심 요소들

### 인종적이며 종교적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

이라크는 75-80퍼센트가 아랍인(Arabs)이며, 15-20퍼센트의 쿠르드인(Kurds)과 5퍼센트의 투르크만족(Turkmen)과 앓시리아인(Assyrian), 그 외 다른 종족으로 구성된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이다. 아랍인은 거의 대부분 수니파(Sunnis)와 시아파(Shiites)로 양분되어 있으며, 쿠르드인 대부분은 수니파(Sunni)로써 이들이 이라크의 주요 3대 세력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발표된 PEW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인구의 99퍼센트가 이슬람교이다. 1920년 이후부터 이들 세 이슬람 세력은 근대국가체제 안에서 함께 했었다. 하지만 부실 관리 사례들이 발견되어 세력간 불신과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분할통치’의 원리에 따라 각기 다른 지도자들이 각각 권력을 갖게 되었다. 현재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종파간 폭력사태는 새로운 이라크 지도자들 사이의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한 쟁탈전이라 할 수 있다.

### 이라크 내 아랍인(Arab)과 쿠르드인(Kurdish)

이라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으로 쿠르드 지역 정부(KRG)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북부도시 아르빌(Erbil)에 기반을 둔 북부 쿠르드 반자치구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Baghdad)를 기점으로 이라크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아랍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쿠르드인과 아랍인은 서로 다른 고유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 내 매장된 석유 대부분은 이라크 북부도시인 키르쿠크(Kirkuk)와 모술(Mosul)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이 지역은 쿠르드 지역과 아랍 이라크의 접경지역으로써 이라크 내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라크 북서쪽으로는 IS세력이 침투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칼리프(Caliphate) 체제가 선포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은 두 가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는 쿠르드 자치국가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이슬람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슬람 테러단체가 자행하고 있는 이라크 내 종교청소(Religious cleansing) 때문이다.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고조되고 있는 종파간 갈등**  
아랍지역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랍의 봄(Arab Spring,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의 통칭)과 자유에 대한 대중의 요구, 중동의 투명한 관리방식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그 기반을 정립시키는 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피난처에서 공동취침하고 있는 기독교인들(VPA제공)

### 고위관리들의 부패와 사회적 불만

부패는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반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정부는 적절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부패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식수, 전력과 같은 사회 공공사업의 장기적인 부족 사태와 대량 실업난이 주된 사회적 불만이다. 부패는 국가의 진보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 집합적인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이라크 국민 대부분은 사담 후세인의 통치기간 중 발생한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세계 경제 제재, 미국이 주도한 공습뿐 아니라 IS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과 계속되는 종파간 폭력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라크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 많은 어린이들이 학습 장애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향후 이라크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이다. 몇몇 분석가들은 트라우마가 사람을 과격화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증가하고 있는 이라크 청년들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이다.



피난민촌에서 죽은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여인(VPA제공)

### 사회에서 커져가고 있는 이슬람의 역할

사담후세인 정권 아래 금지됐던 이슬람 정당 세력인 시아파(Shiite)와 수니파(Sunni)가 이라크 정치에 등장하게 되었고 심지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몇몇 시아파 당원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의 공식 명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이라크 내 이란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이라크는 점점 더 이슬람화 되어가고, 심지어 쿠르드 정부에 자신들 처럼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 특히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이 이란 첩보기관에 의해 감시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이라크 사회는 더욱 더 이슬람화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음주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때때로 금지되기도 한다. 술을 판매했던 상점들은 폭격의 대상이 되었고, 몇몇 가게 주인들이 살해 당했다.

라마단(Ramadan, 이슬람력에서의 9월, 신성한 달로 여겨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약 한 달 가량의 금식기간) 기간 동안 이라크 나라 전체에 주류 판매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 여성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안식일을 준수하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는 등 사회적인 통제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바그다드 내 기독교 여성들은 집 밖을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스스로 두건을 쓰고 다닐 것을 강요받고 있다. IS가 칼리프체제를 선포한 지역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모든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니캅(Niqab, 이슬람교 여성들이 착용하는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얼굴 가리개)을 착용해야 한다. 소문에 의하면 니캅이 아닌 베일을 썼던 여성이 매를 맞았다고 한다.

###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수많은 이민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점점 더 이슬람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반기독교 폭력사태는 이라크 내 기독교 교회들에게 막중한 부담이다. 30만명 가량의 기독교인이 이라크를 떠났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추방당했다. 이라크 카톨릭 교회의 루이스 사코(Louis Sako) 총대주교에 의하면, 13만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IS가 주둔해 있는 지역에서 추방당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의 기독교인만이 정치적 영역 안에서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국으로부터 차별을 받기도 하며 이라크나 쿠르드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종자들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 긍정적인 발전은 쿠르드 지역 내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이 포함된 기독교 단체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무슬림 배경 신자들이 증가하는 숫자가 국내에서 추방당하거나 이라크를 떠난 기독교인의 숫자만큼 높지는 않다.

### 이라크교회의 실상과 역사

이라크에는 오랜 기독교 역사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2천년간 이라크 지역에 거주해왔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도마가 인도로 가는 길에 이라크 지역에 복음을 들여왔다고 한다. 이라크 교회의 95%가 깊은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다. 그 중 3분의



미완성 건물에서 생활하는 그리스천 아이들(VPA제공)

1은 동방 정교회(Orthodox)이거나, 동방 아시리아 교회(Assyrian Church of the East)이며 3분의 2는 갈대아 가톨릭 교회(Chaldean Catholic) 혹은 시리아 카톨릭 교회(Syrian Catholic)이다. 또한 아르메니아 교회(Armenian church)가 있다. 중동의 첫 번째 복음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는 100여 년 전에 고대 도시 니느웨가 있던 자리(현재 모술)에 세워졌다. 지금은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

전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재위 적에 기독교를 포함하여 여러 집단이 이라크 타 지역으로 강제 전이되었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과 함께 또 한번 시작된 인구 이동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이래 몇몇 복음주의 교단이 이라크 북부에 교회를 세웠다. 북부로 몰려드는 국내 실향민(IDP)들로 인해 교회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쿠르트 교회는 2004년에 정식으로 쿠르트 지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현재 이라크 북부에 쿠르트 무슬림배경기독교인들(MBBs)들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 및 가정 교회들이 여럿 있다.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남부 지역에서는 비밀 신자의 수가 수백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 바그다드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았다. 그 동안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인구가 니네베(Nineveh) 평원과 이라크 북부 쿠르트족 자치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안전과 평화를 찾기 위해 수많은 가정이 몇 번의 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다.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 번이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전하게 살 곳을 찾아 옮겨 다닌 것이다. 전체 그리스도인의 70퍼센트 정도는 이라크를 떠났고,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절반 정도는 현재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는 150만에서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현재는 2만 5천 명 가량의 그리스도인만이 이라크에 머물고 있다. 교회를 향한 공격, 납치, 살상, 강도, 강간, 위협 등과 같은 극심한 반기독교적 폭력의 결과,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해외 또는 북부 쿠르트족 지역으로 피신했다. 이라크에 있는 총 그리스도인 수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이다. 이 수가 국회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피난처에서 식량을 제공하기위해 준비하는 스텝들

미국 출신 대주교 아바크(Avak)에 따르면, 2014년 7월 27일 지역 보고서 논의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세력 IS가 이라크 중심의 몇몇 도시와 모술을 장악한 이후 그리스도인의 탈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바크 대주교는 이 상황을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다면, 2025년 안에 이라크에는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쿠르트족 지역 그리스도인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가 지역 경계에 가깝게 접근하자 점점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도자인 라타(Rata, 36세)목사를 석방시켰다. 라타 목사는 카르툼 시의 코버(Kober)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지만, 또다시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한 상태이며, 해당 관련 서류는 법무부 장관이 보관 중이라고 한다. 심지어 샤말 목사가 최근 다시 체포되기 전부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수단 당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를 타워목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 샤말목사의 체포뿐 아니라 타워목사와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을 향한 수단 정부의 최근 모습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에 가하는 박해 수준을 알 수 있다. MEC에 의하면, 이번 주 초(5월 23일 월요일) 이슬람 정부는 교회 건물 일부를 추가로 철거 할 것을 알려왔다고 한다. 카르툼 바리 복음교회(Khartoum Bahri Evangelical Church)가 세워진 토지의 일부가 정부위원회에 불법적으로 매매되었다. 그 후 교회 건물 일부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철거되었다.

## 규제들...

수단의 자체법에 의하면, 수감자는 45일 이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타워 목사와 라타 목사에게는 해당 조항이 무시되었다. 그 외 대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 역시 여러 가지 제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단 그리스도 교회의 아유브 툴얍(Ayub Tilyab)목사, 야곱 나웨이(Yagoub Naway), 빌레몬 하산(Philemon Hassan)과 카르툼 엘 이트바 침례교회(Khartoum El Izba Baptist Church)의 야마니 아브라하(Yamani Abraha) 모두 석방된 이후부터 국가 정보 보안국에 자신들의 상황을 매일 보고하고 있다. 카르툼 시에서 기독교인들을 불법 체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8 월, 카르툼 시는 간첩 활동으로 기소되었던, 남 수단의 옛 마이클(Yat Michael)목사와 피터 옌(Peter Yen)목사를 석방했다. 두 사람은 각각 7개월과 8개월동안 감옥에서 복역했다. 이슬람 배교자로 혐의를 받았던 기독교인 미리암 이브라힘(Meriam Ibrahim)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2014년 6월 석방되기도 했다.

이브라힘(Ibrahim)은 기독교인 남편을 둔 이유만으로 간통죄 혐의를 받아 태형과 배교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녀는 6 개월간의 수감(수감 기간 동안 그녀는 바닥에 수갑을 찬 상태로 여자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후 수단을 떠났다. 그녀가 수감되었을 당시 아들 마틴(Martin)은 20개월 이었다. ●

